

30세 미만 대상자 백신접종 시작

전주시, 25일까지 화산·덕진접종센터서 사회필수인력 등 2421명 대상 1차 실시

30세 미만 사회필수인력 등 2,400여 명을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됐다.

전주시는 15일부터 오는 25일까지 화산·덕진예방접종센터에서 2분기 접종대상자 중 30세 미만(1992년 1월 1일~2003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의 사회필수인력, 취약시설 입소·종사자, 만성신장질환자 등 2,421명을 대상으로 1차 백신접종을 실시한다.

이 대상자들은 지난 7일부터 9일까지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시스템(ncvr.kdca.go.kr)을 통해 예약을 마친 시민들로, 이들에게는 화이자 백신이 접종된다.

화산예방접종센터에서는 기존에 진행되던 75세 이상 노인 2차 접종과 30세 미만 접종이 병행 추진되며, 새로 개소한 덕진예방접종센터에서는 30세 미만 접종부터 시작된다.

접종 대상이지만 사전예약이 조기 종료돼 예약을 하지 못했다면 오는 28일 0시부터 30일까지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시스템을 통해 예약하면 된다. 사전예약을 마친 경우 다음 달 5일부터 17일까지 백신을 맞게 된다.

이와 함께 시는 지난 7일부터 민간 위탁의료기관을 통해 만 60~64세 시민 대상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진행하고 있으며, 10일부터는 예비

군·민방위 대원을 대상으로 안센 접종도 하고 있다.

이와 관련 시는 지난 2월 26일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을 시작한 이후 현재까지 전주시역 18세 이상 대상자 54만7,720명 중 29.85%에 해당하는 16만3,544명에 대해 1차 접종을 완료했다.

김진선 전주시보건소장은 "코로나19 극복의 지름길은 백신 접종을 통한 집단면역을 형성하는 것으로, 시민 여러분들께서는 적극적으로 참여해달라"면서 "예방접종 과정에서 한 분의 시민도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지속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전주 10미 미나리 활용 가공식품 상품화 착착

전주농기센터, 미나리만두·미나리빵·미나리초콜릿 등 개발

미나리만두와 미나리빵, 미나리초콜릿 등 전주 10미(味) 중 하나인 미나리를 활용한 가공식품들이 잇달아 선을 보이고 있다.

전주시농업기술센터(소장 황권주)는 미나리만두, 미나리빵, 미나리초콜릿 등 미나리를 활용한 가공식품들을 속속 개발해 상품화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시는 최근 미나리를 원료로 한 만두를 개발해 한옥마을 내 한 업소에서 판매하고 있다. 미나리 44%가 들어 있는 이 만두는 향긋하고 담백하다는 호평을 받고 있다.

미나리빵과 미나리초콜릿은 지역

내 제과점에 기술 이전을 한 뒤 식품 표준화 및 네이밍 등의 단계를 거쳐 제품 판매에 들어갈 예정이다. 시는 제품을 판매하면서 소비자 반응을 수렴해 제조 과정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미나리만두, 미나리빵, 미나리초콜릿 등 미나리를 활용한 식품이 지역 관광 상품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다음 달부터 한옥마을에서 홍보활동과 시식회를 전개할 계획이다.

시는 미나리와 같은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가공식품이 상품화에 성공하면 농가 소득이 향상되는 것은 물론이고 침체된 지역경제도 활력을 찾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황권주 소장은 "전주하면 바로 떠올릴 수 있는 대표 가공식품이 상품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상품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갈 것"이라며 "상품화를 통해 농가소득을 증대시키고, 읍식장의도시 전주의 위상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주10미는 선녀미 미나리를 비롯해 기린봉 일대의 열무, 고통 황포돛, 신흥리 애호박, 서남골 파래시, 소양 서초, 삼례 무, 한내 게, 한내와 남천의 모래무지, 고통 콩나물 등 전주 특산물 10가지를 일컫는다.

/김윤상 기자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30일까지 신청하세요”

전주시, 완산·덕진구청 세무과 재산세팀에 방문 신청

전주시는 착한 임대인에게 70%까지 감면해주는 재산세(건축물분) 부과를 앞두고 오는 30일 착한 임대인들을 대상으로 한 재산세 감면 신청을 마감한다고 15일 밝혔다.

감면 대상은 착한 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 혜택은 50%까지였으나, 올해에는 코로나19 장기화의 여파로 감면율이 70%까지 늘었다.

감면 대상은 지난해 7월 1일부터 오는 6월 30일 기간 중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인하한 건물주로, 보증금을 인하는 경우에도 인정된다. 또 지난해 1월부터 6월까지 임대료를 인하는 건물주

가 이후 3개월 이상 유지한 때에도 대상자에 포함된다. 다만, 유증업과 도박·사행성 업종은 제외된다.

감면 대상 건물주는 오는 30일까지 전주시 홈페이지(www.jonju.go.kr)에서 내려받은 재산세 감면신청서와 임대료 인하 전·후 임대차 계약서, 임대료(보증금) 인하 증빙서류(변경계약서, 약정서, 확인서, 임대료 인하 전·후 통장 이체 내역 중 택일)를 지참해 완산·덕진구청 세무과 재산세팀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완산구청 세무과 재산세팀(063-220-5282, 5385, 5386,

5390), 덕진구청 세무과 재산세팀(063-270-6282, 6283, 6286, 6385)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해 총 445명의 착한 임대인에 642건, 1억4100만 원의 재산세를 감면해줬다.

김병수 전주시 신성장경제국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따뜻한 도움을 베풀 착한 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 혜택이 작은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착한 임대료 인하 확산으로 소상공인과 건물주가 상생할 수 있는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많은 상가 임대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전주 객사길 테마별 특화거리로 만든다

내년 6월까지 조선시대 전주부성 흔적길·객리단 감성길·객리단 보행길 등 조성

20~30대 젊은이들이 많이 찾는 전주 객사길이 조선시대 전주부성(全州府城)의 흔적과 정원도시 전주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특화거리로 탈바꿈한다.

전주시는 내년 6월까지 전주객사1·2·3길 1.7km 구간을 대상으로 객사길 테마별 특화거리 조성사업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이 사업은 차도와 인도를 구분해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면서 ▲조선시대 전주부성 흔적길 ▲객리단 감성길 ▲객리단 보행길 등 3가지 테마별 특화거리를 조성하는 게 특징이다.

전주부성 흔적길의 경우 옥토주차장 부근이 전주부성 터에 포함돼 있는 만큼 역사성과 상징성을 살리기 위해 시민들에게 친숙한 종남문 성벽 패턴의 석재로 보도를 포장기로 했다.

옥토주차장을 걷 도로는 방문객이 가장 많이 오가는 점을 감안해 건축물 앞쪽에 플랜터(화분)를 설치해 정원거리 연출하고 건축물과 조화되는 판석으로 포장하는 등 감성길·보행길



전주 객사길 특화거리 계획도.

로 만들기로 했다.

시는 다음 달부터 공사에 착수해 내년 6월 특화거리 조성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시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19년 보행환경 개선사업' 공모에 선정돼 국비 10억 원 등 총사업비 20억 원을 들여 '객사길 보행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해왔다.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 등 유관기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해 전주객사1·2·3길을 일방통행으로 변경했으며, 불법주차차 단속카메라 8대를 설치했다. 시는 우·오수 분리사업과 지중화 사업을 올 연말까지 추진할 예정으로 거주민, 상가 관계자 등과 민·관협의체도 지속 운영할 방침이다.

/김윤상 기자

전주시, 청각장애인 위한 수어통역 영상전화기 4개소 운영

전주시가 청각장애인을 대상으로 원활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수어 통역용 영상전화기를 설치했다.

시는 화산·덕진예방접종센터와 전주시수어통역센터, 시청 등 총 4개소에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어통역 영상전화기를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수어통역 영상전화기 운영은 청각장애인 대상 코로나19 검사 등 행정기관과의 통역이 필요할 경우 원활한 수어 통역을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번에 설치된 영상전화기는 무선 통신을 기반으로 한 태블릿형(10인치)으로, 다자간 영상통화가 가능하다.

청각장애인들은 이 수어통역 영상전화기를 사용하거나 수어통역 영상전화서비스 앱을 설치한 휴대폰을 통해



보건소나 선별진료소를 선택해 누르면 전주시수어통역센터와 3차 연결된다. 전주시 수어통역사는 청각장애인의 수어를 실시간으로 통역해 예방접종센터 현장 직원에게 음성으로 전달

해주게 된다.

향후 시는 주민센터 민원서비스 등 수어통역 원격지원에 대한 요구를 반영해 영상전화기 보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김윤상 기자

전주시, 대형폐기물 배출 인터넷 신고 24시간 운영

전주시는 공휴일과 한밤중에도 대형폐기물 배출신고를 할 수 있도록 인터넷 신고를 연중 운영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전화 신고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만 운영되지만, 인터넷 신고는 24시간 쉬지 않고 운영돼 편리하

게 이용할 수 있다.

인터넷 신고는 전주시청 홈페이지에 있는 대형폐기물 배출신고 배너를 통해 접속하거나 생활대형폐기물 배출신고 사이트에 접속해 할 수 있다.

배출지는 배출품목과 배출장소, 배출 예정일자를 입력 후 신용카드 또는 계

좌이체를 통해 수수료를 결제하고 납부필증을 인쇄해 품목별로 부착하면 된다. 담당 공무원이 스마트폰 앱을 통해 대형폐기물을 확인하고 휴대용 프린터를 이용해 납부필증을 출력·부착하는 방식으로도 운영된다.

공공주택의 경우 아파트 관리사무실이나 경비실에 신고 후 일괄적으로 인터넷에 등록하면 보다 신속한 수거가 이뤄진다.

/김윤상 기자

아직도 망설이십니까?

전주매일 금연캠페인

